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 · 요셉성월
제33권 16호(다해) 2013.3.17

[묵상]



사랑
자체이신
용서의
하느님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을
용서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흥분한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와
현장에서 잡은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는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한 여인을,
이래도 용서할 거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경중에 있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 자체에 있기에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를 보시고
예수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인을 고발한 군중의 용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사랑 자체이신 용서의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최시자, 이강희 윤일요한, 성세근 요셉
	(생)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권복남 모니카, 이용식 베드로, 김금점 모니카, 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고준희 체임스, 전시웅 요한, 김재순 아가다, 차수영 베드로 & 이연희 클라라, 차신희 & 신성녀 안나, 송경순, 유연홍, 홍관 요셉
	(생) 이윤조 클라라, 정애나 세라피나, 김기준 안젤라, 이종원 베드로 & 이룬다 아녜스 가정, 이종민 요셉, 박인수 프란치스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3,16-21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3,8-14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복 음 요한(John) 8,1-11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3	158	156
봉헌	257	257	126
성체	303	303	281
파견	157	150	10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기도하며 읽는 것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이렇게 볼 때, 하느님 말씀을 읽는 것은 참회와 회개의 길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깊게해 주고 하느
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
인이 말했듯이, “신앙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와 함께 그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은 다시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서 산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마리아를 통한 기도

88). 하느님의 말씀과 나자렛의 마리아 사이의 분리할 수 없는
유대를 기억하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과 함께 신
자들 사이에서, 특히 가정생활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신비들을 묵상하기 위한 도움으로 마리아를 통한 기도를 장려
하도록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묵
주 기도를 바치는 것은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묵주 기도
는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빛의 신비들로 묵주 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각 신비를 알릴
때에 해당 신비와 관련된 짧은 성경 단락들을 함께 읽음으로
써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들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더 깊이 새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신자들에게 삼종 기도를 장려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깊이가
있고, 우리에게 “매일 강생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
느님의 백성이, 가정과 봉헌된 이들의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해가 뜰 때, 한낮에, 그리고 해가 질 때 바쳐 온 이 기도를 충실
히 바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삼종 기도에서 우리는 하느
님께, 마리아의 전구로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청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강생의 신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기
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테오토코스(theotokos), 곧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동방의 옛 기도들
을 알고 존중하고 전파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카티스
트(akathist)와 파라클레시스(paraklesis)를 언급하고자 합니
다. 이들은 호칭 기도의 형태로 노래하는 찬미가들로서, 교회
의 신앙과 성경 인용들이 가득 담겨 있고, 신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계속>

‘돌직구’를 날리신 예수님

사순절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자신의 죄를 살피고 고해성사를 통해 부활 대축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복음이야기는 과거의 죄를 캐묻고 처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아주 편리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마르 7,9-13 참조) 타인에게는 가혹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루카 18,11)라고 어처구니없이 주절대기도 합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거리낌 없이 교류하고, 안식일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눈에 든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기막힌 올가미를 사용하여 예수님까지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쳐죽이는데 동의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명백한 현행범을 그냥 용서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팔매질에 대한 열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마스크와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치고,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무언가를 쓰시면서 숙고의 시간을 버십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루카 6,37) 아니면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예레 17,13)라고 쓰셨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이웃을 단죄하는 일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웃의 잘못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메마른 인간들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생명의 샘이신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들이 끈질기게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돌직구’가 되어 진짜 돌을 들고 있던 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토록 확신에 찬 행동을 보이던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간음한 여인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율법의 요구와 그 적용만이 하느님의 궁극적인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돌직구’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짓지 마라.”(루카 8,11)는 말씀으로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여인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라나타	정명모 마리아
재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재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5주일(3월22일 금) : 하버/카슨 구역
 - 성 금요일(3월29일) : P.V. 구역(오후 3시 야외 14처)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 봉헌 :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28일) 미사 중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 3월19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공동보속 : ①십자가의 길 ②자선1회 ③주모경1회 ④평일미사참석 ⑤선행1회. 이상 다섯가지중 3가지 이상 실행하십시오.
- ◆ 수요일 평일미사 아침미사로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관계로 타성당으로 출장 갑니다. 수요일 저녁미사(3월20일)가 아침 8시30분으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발씻김 음식(세족례)에 참여하실 분 신청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오는 주님만찬 성목요일 미사(28일) 발씻김 음식에 참여하고 싶은 교우12명을 선발합니다(선착순). 24일(주님수난 성지주일) 오후 3시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십시오.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3월31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4일(성지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 요셉회 '레미제라블' 영화 상영
 - 일시 : 3월17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후 성전
 - 작품 : 1998년작(한글자막)
리암 니슨(장발장 역) 주연, 빌 어거스트 감독
 - * 문의 : 김대우 비오 요셉회장 ☎(310)920-7647
-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4월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단원들이 모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각단원은 물론 협조단원들도 꼭 참석해주십시오.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 단장 ☎(310)408-1443
- ◆ 성경공부(Lectio Divina)만 시작했습니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2층교실(동남쪽)
 - 지도 : 오마우라 수녀
- ◆ LA마라톤 대회에 본당교우 6명 참가
제28회 LA국제 마라톤 대회에 본당 교우 6명이 참가합니다. 건강하게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 일정 : 오늘 주일(17일) LA다저스타디움~산타모니카피어
 - 참가교우 : 윤희동 안토니오, 차인수 안드레아, 권순애 테레사, 정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최현찬 안드레아
-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부활절을 앞두고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을 형제자매들은 물론 친지들에게 선물할 아이템이 많으니 한번쯤 둘러주세요. 축성받은 성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 문의 : 김춘자 막달레나☎(310)539-3377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17일(주일) : 故이용식 베드로님 유족이 친교점심 대접 (양지머리국밥 토렌스 북구역 봉사)
* 주일학교(6학년 햄&치즈&에그 샌드위치)
 - 3월24일(주일) : 토렌스 남2/3반(콩나물밥 \$3)
* 주일학교(5학년 떡볶이)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윤철	구자운	국세찬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민석	김병철	김성현	김양금	김옥보	김옥찬	김 용
	김원모	김원호	김종훈	김주량	김행선	남성철	노혜숙
	모은기	박봉성	박선희	박인식	박정희	배경락	석순영
	성낙호	소성덕	송호창	양병관	이경태	이민상	이영희
	이우성	이인두	이길길	이현주	전정자	정열모	조소영
	주대중	주영석	차정애	최기남	최상만	최의수	최현찬
	최희태	한창주	황지영	한길선			
	합계 : \$7,710						
주일미사헌금 : \$2,879							
성전헌금	강미순	강윤철	구자운	국세찬	김관기	김교복	김대우
	김민석	김양금	김옥보	김 용	김원모	김원호	김주량
	김행선	남성철	노혜숙	모은기	박봉성	박선희	박인식
	박정희	배경락	석순영	성낙호	소성덕	송호창	양병관
	오명섭	이경태	이민상	이영희	이우성	이현주	정열모
	주대중	최기남	최상만	최현찬	최희태	한창주	황지영
	한길선						
	합계 : \$5,540						
감사헌금 : 차정에	한남체인도네이션 : \$29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사순시기에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학교 교리공부 시간 중 '십자가의길' 기도를 성모동산 야외14처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 오늘주일(17일) : 6,7,8학년 * 24일 : 유치부,1,2학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대회 3월24일 마감

- 제목 : 마태오복음(영어)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3월31일)

◆ 부활절 Egg Hunting

- 일시 : 31일 부활대축일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부터
- 장소 : 축구장 잔디
- 대상 : 유치부~6학년
- 방식 : 성경구절이 담긴 플라스틱 달걀을 찾아내어 대형판에 성경구절을 퍼즐 맞추듯 붙입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Deposit \$40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3월31일까지 선착순 40명(인원제한)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한국학교 교사를 초빙합니다.

- 한국 또는 미국 대학졸업하신분
- 한국학교 관련 연수에 참석할 수 있는 분
-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
- 문의 : 한국학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남가주 소식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3월24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한인종신부제협의회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자마이카 선교여행 참가자 모집(Mission Trip to Jamaica)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자"

- 일정 : 5월4일(토)~12일(주일)까지
- 지도신부 : 이유진 신부(순교자성당 주임신부)
- 참가비 : \$700(항공료만 부담)
- 준비모임 : 매주 일요일 7:30pm
- 문의 : 순교자성당 사무실 ☎(714)897-6510

◆ Food Bank에서 여러가지 식품을 제공합니다.

- 장소 : 가디나 아시안 커뮤니티센터(14112 Kingsley Dr.)
- 오전 9시~낮 12시
* 신분증 지참하고 오세요.
- 구인 : 55세이상 시니어 파트타임(주30시간)
- 문의 : 조소영 수산나 ☎(310)804-7645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양금 안나 518-3041 3/9(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3/9(토) 오후 7시
	3	박진경 클라라 871-7460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23(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6(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3/8(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3/15(금) 십자가의길 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행선 올리아나 634-6923 3/14(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3/8(금) 십자가의길 기도후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서성용 베드로 686-3587 3/11(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3/9(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용무 스테파노 377-9989 3/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재준 요한 541-0765 3/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3/8(금) 저녁미사후 십자가의길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진숙 엘리사벳 617-3568 3/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3월 사목회	오후 1시
--------	-------

제266대 교황 탄생...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 선출

전 세계 12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 제266대 교황에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사진).

남미 출신이 교황이 된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이며, 비유럽권 출신으로는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 이후 천282년 만입니다. 새 교황은 앞으로 사용할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결정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시스티나 성당 굴퓏에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색 연기가 피어오른 지 약 1시간 20분 뒤인 3월13일 오후 8시 24분(현지), LA시각으로는 13일 낮 12시 24분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 교황을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수 십만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바티칸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온 프란치스코 1세는 공식 축복행사인 '우르비 엠포르비'를 통해 전세계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강복을 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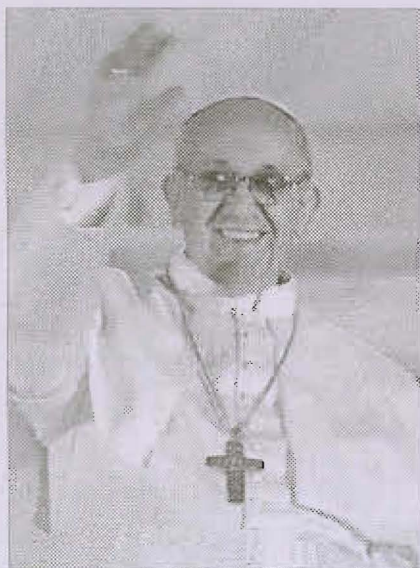
"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인사로 말문을 연 새 교황은 동료 추기경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다른 세상의 끝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는 농담으로 남미 출신 첫 교황 탄생을 알렸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는 "무엇보다 먼저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며 "주님께서 전임 교황께 강복을 내리시고, 성모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다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전세계 교회를 자비로 이끌 여정을 함께 떠나자"면서 "오늘 시작되는 교회의 여정이 전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새교황님 대관식(착좌) 미사 : 3월19일(화)

성베드로 광장



“새 교황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대교구 염수정 대주교 감사미사 봉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목자로 교황 프란치스코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관용과 포용력을 지니고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사랑과 일치, 진리와 희망, 빛과 기쁨을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베네딕



토 16세 교황님은 특히 교회의 근본정신과 정통성을 인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새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기승을 부리는 현대사회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 봉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교회'인 가톨릭교회는 2천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정통성을 굳건히 하면서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순간도 자신의 본질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변화하지 않는 교회가 본질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쇄신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 교황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 교황님께서 한국 천주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님을 통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바치는 기도는 교황님께 더 할 수 없이 고귀한 선물이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3. 3.14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 염수정